

“민간공원 2단계, 서둘러 말고 속의 과정 거쳐야”

시의회·전문가들 “준비 기간 필요... 사업 일정 연기”

광주시 “시간 없다...상반기 공고·하반기 우선협상자 선정”

중앙, 일곡, 중외 등 광주의 대표공원이 포함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징성이나 대표성, 시민 여론 등을 감안해 1단계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안서 공개 검증, 심사 과정 및 결과 공유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가 사업자의 문제제기와 타당성 검토 등으로 1단계(송암·수랑·마루·봉산) 사업의 우선협상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 시점인 2020년 7월 1일에 맞춰 2단계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11일 “12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거버넌스 전체 회의를 갖고 2단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제안 공고, 하반기 우선협상자 선정 등 2단계 추진 절차를 설명하고, 개발 대상 및 규모 결정, 심사 기준 마련 등을 거버넌스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제안 접수, 공고, 우선협상, 사업자 선정,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2단계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서둘러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 관련 전문가 등은 중앙·일곡·중외 등 2단계 대상 공원의 규모가 커 광주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대규모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비용이 수만만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공원은 1330개 필지에 면적이 293만9337㎡에 달하며, 중외공원은 986개 필지 208만2873㎡, 일곡공원은 428개 필지 106만6166㎡다.

민간사업자 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성 향상을 조건으로 공공기관과의 협약 체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월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환경생태국 업무보고에서도 2단계 사업의 연기가 논의된 바 있다. 전진숙 위원장은 “2~3개월 일정을 연기하고 좀 더 속의하고 해서 2년 후에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오려려 민선 6

기에서 결정된 사안이 민선 7기에서 틀어져 논란이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단계 사업 제안 공고, 심사, 우선협상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2단계 제안 공고를 하게 되면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높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에 대해 대책을 서둘러야 하지만 도시공원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도시문제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민과 전문가가 좀 더 논의하고 속의하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공원 보존 및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도시공사에 거액 사업비 떠넘겼다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

농기센터 화훼보급 주먹구구

광주시가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에 거액의 사업비를 떠넘기거나 지급을 미뤄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일빌딩 매입과 리모델링, 평동 2차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시는 도심 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빌딩 3개층 매입에 53억원, 리모델링에 180억원 등 총 2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도시공사에 18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억원은 공사 측이 부담하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공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평동 2차 산업단지 조성 관련 대행사 업체 낙찰 지급도 도마에 올랐다. 총사업비 3369억원이 투입된 평동 2차 모산단 조성공사 준공 후 지난 2012년, 대행

사업비 정산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시가 감사시점인 지난해 상반기까지 4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화훼 보급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시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10건을 적발, 기관경고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 6건과 18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화훼 보급을 위한 꽃 육묘장 예산으로 무려 17억 7000여만원을 집행했으나 소요량 계획부터, 선정, 공급절차 등 관리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센터의 고유기능인 농촌진흥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꽃 육묘사업의 적정규모를 분석·검토하고 예산의 낭비사태가 없도록 사업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기센터는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인원 5천54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93.3%인 5천175명과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노후주택

1677개동 개량

전체 사업량 18%... 전국 최다

올해 전남지역 노후주택 1677개동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된다.

전남도는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여건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유치·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1677개동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사업량(9337건)의 17.9%로 전국 최다이다.

용자 지원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바라는 농촌 주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 중 주택개량, 주택 용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문화가정과 취약가정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사업 대상자는 최대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내 건축이 안 될 경우 착공신고를 완료한 자에 한해 다음 연도로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6월30일까지 주택 건축을 완료해야만 8월 31일까지 용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인야시장 별장프로젝트 개장
대인예술시장에서 진행된다.

대인야시장 별장프로젝트가 개장한 지난 10일 극단 '소리노리'의 길놀이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대인야시장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성희롱·성폭력 상담·조사 여성인권보호관 설치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최근 우리 사회의 성 차별적 문화의 개선요구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희롱·성폭력 등 직장 내 여성 인권침해와 여성차별 사건에 대해 상담·조사를 전담하는 여성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

시는 11일 “여성 관련 고충상담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전문적인 조사·상담 활동을 해온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성인권보호관을 임용하기 위해 오는 19일부

터 2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독립성과 전문성, 피해자 비밀보장이 가능한 인권을부즈맨실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인권보호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 감사위원회 등에서 처리했던 여성 인권침해 및 성희롱 관련 업무를 인권을부즈맨실로 단일화한 것이다. 여성인권보호관은 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성차별·성희롱 등의 고충에 관해 상담과 조사, 서비스를 상시 지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성차별 조직문화 전수조사를 실시해 직장 내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증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시 전 부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는데 앞장서고, 문제가 발견되면 적극 권고하는 등 시정 전반의 직장문화 개선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진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 선임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신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로 선임됐다.

11일 문화부와 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이 전당장 직무대리는 1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그는 문화전당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 출신으로 순천 매산고, 아주대를 졸업한 뒤 경희대에서 호텔관광 관련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2004년 문화부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2009년 문화전당 운영팀



력 팀장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정책기획본부 부단장, 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을 맡았다.

문화부는 문화전당 개관 1년만인 2016년 3월 전당장 첫 공모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친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당장 선임을 보류하고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른미래당 전남 4곳 지역위원장 공모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승용)은 오는 16일까지 전남지역 4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 지역위원회는 ▲순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이다.

접수는 중앙당 조직국에서 받고, 응모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팩스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바른미래당 중앙당 홈페이지(http://bareunmirae.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봉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은 “전남 지역위원회 조직정비를 완료하면 잠실한 인재를 영입해 6·13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생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용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물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